AI시대, 불교의 지혜로 길을 묻다

AI와 미래불교

신행 · 수행 · 포교 변화 이끄는 AI 기술
'바른 앎' 담고 한계 · 역할 분명히 해야
불교적 방향 제시할 'AI 윤리선언' 필요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1주년을 맞아 'AI와 미래불교'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AI)은 산업 · 교육 · 문화 · 예술 등 사회 전 분야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종교도 예외일 수 없다. 불교의 전통적 수행 · 교화 방식은 물론 신행 · 수행 · 포교 패러다임까지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AI시대,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9월 12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보일 스님(AI부디즘연구소장)과 지승도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명예교수,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 박훈 현대불교 뉴미디어 자문위원이 참여해 AI와 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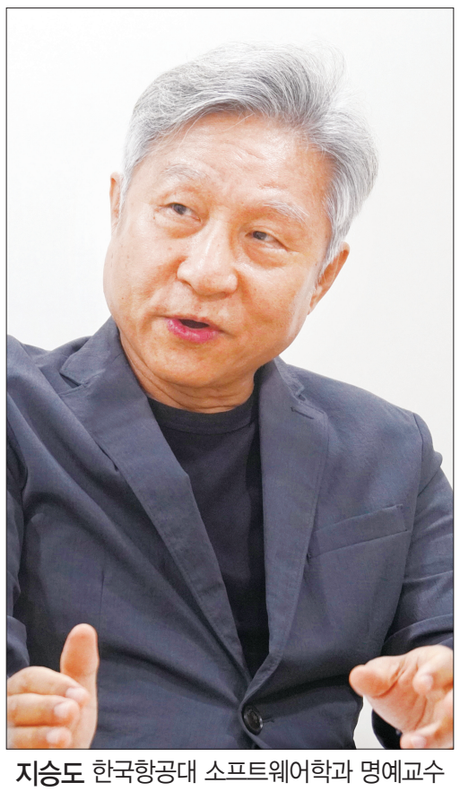
좌담회에서는 종교계의 AI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수행 · 전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짚고 불교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AI시대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AI 개발과 활용에 반영될 수 있는 '불교 AI 윤리선언'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 전문은 현대불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사회=여수령 편집국장 · 정리=신중일 기자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불교 AI 윤리선언은 불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담아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승도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명예교수

"AI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 바른 앎을 심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

"불교계는 AI가 인간 존엄을 훼손하지 않고, 공존·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박훈 현대불교 뉴미디어 자문위원

"단계적 AI 활용 지침 마련은 불교를 넘어 사회의 AI 윤리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AI스님, AI목사의 등장

▶**사회자:** AI는 예상보다 빠르게 종교와 만나고 있다. 법회나 예배 준비에 도움을 받는 수준을 넘어, AI가 직접 법문이나 설교문을 작성해 의례를 집전하고, 나아가 'AI붓다', 'AI예수'도 운영되고 있다.

▶**보일 스님:** 'AI스님'이라는 표현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배경과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단순히 흥밋거리로 치부할 수 없는 주제다. 일본 교토의 고다이지(高台寺) 사찰에서는 '마인더(Mindar)'라는 로봇이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져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기본적인 설법을 전한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방문객들이 로봇 앞에서 합장하고 경청한다는 사실이다. 종교적 신심이 로봇을 향해 나타난 것이다.

중국의 여러 사찰에서도 'AI스님'이 운영되고 있다. 신도들이 휴대전화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불교 경전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가 디지털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사례는 준도 코엔(順道公円) 스님이 2024년에 행한 'AI 수계식'이다. 당시 스님은 가상의 존재에게 상징적으로 의식을 거행했다. 이는 "AI도 승려가 될 수 있는가?", "AI에게 계를 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불교 정체성과 전통을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전통적으로 불교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수행과 제도를 변용해 왔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또 한국과 일본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맞추어 제도가 조정됐다. 'AI스님' 담론은 이러한 불교의 유연성을 다시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승도:** AI를 단순히 인간과의 차이로만 구분하는 접근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질문은 "AI는 어떤 앎을 가진 존재인가?"이다. 불교에서 앎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앎은 지혜와 연결되고,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산출한다. 그것이 단순 계산인지, 의미의 구성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해석이나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교적으로 AI를 어떻게 봐야 할까?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형성되고 변한다. AI 역시 데이터라는 조건 속에서 인식 구조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처럼 감정이나 자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AI는 종교적 사유를 자극한다.

즉, AI를 단순히 도구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것이 불러오는 새로운 사유와 가능성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양자역학이 인간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촉발했듯, AI도 종교적 존재론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화행:** 이미 불교계 내부에서도 AI를 활용해 경전을 요약하거나 법문 초안을 만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범용 인공지능(AGI)이 현실화되면,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종교적 주체로까지 인식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교가 교리적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AI가 법문한다면 그것을 단지 참고로 볼지, 교리적 권위를 인정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불교계는 지금부터라도 AI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인간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되, AI와 공존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박훈:** 'AI스님' 담론은 종교적 층위와 사회적 층위로 나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층위에서는 "AI가 계를 받을 수 있는가?", "AI가 설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는 불교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승려가 된다는 것은 불교적 지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키며 공동체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AI에게 계를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곧 불교 승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사회적 층위에서는 책임과 권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AI가 잘못된 상담을 제공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 설법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제조사와 운전자, 혹은 프로그램 개발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논란이 된 것처럼, AI 종교인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AI스님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이분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신도들이 AI와 접촉하는 현실 속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신행 · 포교 방식 변화

▶**사회자:** AI스님이나 AI목사의 등장이 신행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일 스님:** 먼저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불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법문을 듣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도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

불교는 지식만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다. 절에 모여 함께 법회를 하고, 수행과 예불로 공동체적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법당에서 스님과 눈을 맞추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 쉬는 경험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불교계는 AI의 장점을 취하되, 공동체 신행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낼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승도:** 공동체가 단절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사찰들이 온라인 예불과 법회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신도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공동체적 경험을 이어갔다. AI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AI가 제공하는 내용의 질과 정확성이다. 불교 수행은 바른 앎과 지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화행:** AI의 도입은 세대별 신행 방식의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기에 AI 설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B7면에 계속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 연 스님

사부대중 일동

지혜란 나를 세우지 않는 마음이다. – 대행선사 법어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